

기존 포교방식 버려라

인구 10만 해운대 신도시, 타종교 공격적 전도에 포교는 '걸음마'

최근 기독교의 한 부흥회에서 나온 '해운대구 71개 사찰이 무너지도록'이라는 제목의 기도문이 인터넷에 나돌았다. 이같은 기도문구는 최근 인구 유입 급증으로 종교간 소리없는 전쟁이 진행 중인 해운대 신도시에 대한 타 종교의 공격적인 전도 의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기독교는 신도시 개발시점부터 종교 부지 확보를 위해 뛰었고 지금은 적극적으로 전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신도시 인구가 조만간 1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불교계의 해운대 신도시 포교는 아직도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부산 해운대 반야원의 참선법회 모습.

신도시 포교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스님들은 신도시 포교가 안정선에 돌입하기 위해서는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의 원력에 의존하고 있는 형태를 극복하고 종단 차원의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신도시 포교에 적합한 수행력과 법랍 등을 고려, 종단 차원에서 공간을 확보하고 포교에 적합한 주지스님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

기존 사찰과는 달리 신도시에서 문을 여는 포교원의 경우 시설이 낙후되면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다. 공간 확보나 시설에 대한 투자도 관건이다. 그런 측면에서 교구본사별로 신도시 지역에 대한 관심과 지원 시스템도 고민해야 한다.

해운대 센텀시티 일대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완공을 앞두고 있어 해운대 신도시와 더불어 이 지역 포교에 대한 대비도 시급하다. 현재 센텀시티내 개인 예정인 한 곳을 제외하고는 포교원 개원 움직임이 전무한 상태다.

반야원 주지 목종 스님은 "젊은 층, 고학력자들이 사는 신도시의 특성상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되다 보니 불교, 즉 수행을 원하는 이들이 많다"며 "그런데 정작 불교계 준비는 미흡해서 안타깝다. 앞으로 종교 부지나 공간 등을 확보해 신도시 포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반야원 불교대학 운영 등 2년째 '고군분투'

수행·생활 불교 연계한 프로그램 절실

인근 센텀시티아파트단지도 주목해야

만 처음 26명으로 불교대학을 시작했으나 2년만에 256명이 등록할 정도로 자리를 잡았다.

반야원은 신도들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으로 수행에 목말라있는 신도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여러가지 노력을 기울인다. 주말에는 가족 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주말 수련법회를 열고 있으며 불교대학을 수료한 58명을 대상으로 교리에 바탕을 둔 보살행을 펼칠 수 있도록 자원봉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 비용의 반을 절에서 부담한다.

향후 봉사단을 꾸려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교리와 수행, 봉사를 두루 갖춰 삶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팔관재계 수계산림 법회

부산 관음사, 200여명 동참

부산 관음사주지 지현은 9월 19일 관음사 대웅전과 원통보전에서 팔관재계 수계산림 법회를 봉행했다. 팔관재계는 오계에다 제때 아니면 딱지 말라는 등 삼계를 더한 재가자가 지켜야 할 여덟가지 계를 말한다.

200여 동참 대중들은 참회진언을 외우며 팔관재계를 잘 지켜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불자들이 될 것을 다짐했다.

관음사 주지 지현스님은 "우리는 알개 모르게 수많은 죄를 짓고 산다"며 "이번 수계를 계기로 참회하고 바르게 살기를 발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아 기자

부산공불련 응공사서 합동법회



부산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최익두)가 9월 16일 기장 해동 응공사에서 합동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법회는 부산진구, 서구, 기장군 등 부산시 16개 구·군 공무원불자 500여명이 동참했다.

해동응공사 주지 정양스님은 법어를 통해 "사람마다 신심의 깊이가 달라 불법을 실천하는 데 다름이 많지만 부처님의 법은 늘 한 가지를 말 하고 있다"며 "스스로 잘 다스리고 내가 아닌 다른 이들에게도 나와 다름없이 대할 수 있는 불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공무원불자연합회는 16개 지회에서 1,100여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매월 지회별 정기법회를 봉행하고 년중 4회 합동법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은아 기자

성호 스님 연꽃 사진전

성호 스님의 가족과 함께하는 연꽃 사진전이 9월 16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로비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스님이 15년간 찍은 연꽃 사진 60여 점이 전시됐다.

(사)한국가곡문화예술협회 자문위원인 성호 스님은 한국가곡을 널리 알리고 연꽃으로 불법을 전하겠다는 발원을 세워 부산공연을 시작으로 순회전시일정에 들어갔다.

성호 스님은 이날 전시회에서 "가장 낮고 더러운 곳에서 피면서도 고귀함을 잃지 않는 연꽃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소중하고 고귀함을 알고 싶다"고 말했다.

10월 10일 대구시민회관, 12월 6일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도 순회 전시를 갖는다. 이은아 기자

지역불교 일구는 우바이

최미선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사무국장



만 20년을 한결같은 열정으로 어린이 포교 현장에서 일해온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이하 대불어) 최미선(39·대지혜) 사무국장을 병원에서 만났다. 최 국장은 최근 갑작스런 두통으로 뇌수술을 받았다. 생사를 넘나드는 수술이었지만 다행히 성공적이었다. 아픈 몸으로 병원에 누워서야 20년 만의 휴식을 맞고 있다.

그러나 병문안을 온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주제는 어김없이 어린이 포교다. 옆에서 간호를 하던 남편 이동원씨가 "좀 살만 하나까 바로 또 시작이네요. 저래야 정상이지요"라며 고개를 내저었다.

"10월 21일 어린이 포교 전진대회 행사가 11월로 계획돼 있고, 동화구연대회 등 행사가 줄줄인데 이렇게

고 있다. 이번이 수술로 병원에서 못하지 않은 첫 휴가를 보내기 전에 휴가는 꿈도 못꾸었다. 올해 처음으로 아이들과 가족 여행을 다녀왔을 정도. 수술로 생사를 넘나들 때는 정작 두 아이에게 가장 미안했다고 한다.

밤늦은 회의에 날이면 날마다 늦는 아내의 건강을 염려해왔던 남편에게 이번 수술로 또 한번 할말이 없어졌다. 그러나 남편은 오히려 "살아나기만 하면 원하는 것 마음껏 하고 싶게 해주겠다고 했으니 어린이 포교 원없이 하도록 도와야겠다"며 웃어보였다.

"가족들의 이해속에서 많은 아이들을 부처님 품속에 들어오게 할 수 있어 고맙고 기쁘다"는 최 국장은 "내가 어린이 포교를 하면서 배우고 받은게 너무 많아 앞으로 남은 시간동안 내가 가

어린이 포교현장 20년 누빈 '베테랑'

포교 노하우 정리해 공유토록 할 계획

누워있으니 다른 직원들에게 미안하죠."

남편 이씨가 업무무 전화를 압수했지만 소용이 없다. 머리 속에 차곡차곡 쌓여 있는 21년 동안의 어린이 포교 데이터와 열정은 최 국장의 생명이요 호흡 같은 것이니까.

어린이 법회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부처님 법을 전하는 선배들이 좋아 무작정 어린이 포교에 뛰어든다는 최미선 국장.

지금도 어린이 포교와 자신의 삶을 분리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지만, 첫째 아이를 낳고 힘들어서 포기할 생각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현장을 떠나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놓쳐 버릴 것 같아 아이를 사무실에서 키우다시피 하며 고비를 넘겼다.

대불어 사무국장으로서 부산은 물론 전국의 어린이 포교에서 실무를 관장하고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최 국장은 아직도 현장을 떠나지 않고 있다.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최 국장에겐 밥과 같은 에너지가 된다. 1, 3주 일요일에는 금화사초등학교, 노는 토요일에는 금정포교원에서 법회를 맡

진 모든 것을 후배들에게 전해주고 싶다"고 했다.

그동안 <설법과 교리> <어린이 찬불가> <어린이 법요집> <어린이법회 지침서> 등 어린이 포교 관련 많은 책을 정리했지만 앞으로 남은 과제도 머리 속에 있는 노하우를 정리하는 것으로 정해놓았다.

"내가 없어도 모든 일이 돌아가도록 정보를 공유하고 시스템을 만들어 어린이 포교가 탄실한 뿌리를 내리도록 하고 싶어요."

퇴원을 하는데도 모든 일이 돌아가도록 정비를 공유하고 시스템을 만들어 어린이 포교가 탄실한 뿌리를 내리도록 하고 싶어요."

천미희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 부산지사 : (051)632-0064
-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 경남남부지사 : (011)571-5316
- 울산지사 : (052)272-0909



한국불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30개월 된 몽골 아이 테무진이 한국 불자들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을 얻었다(사진 가운데).

테무진은, 불자들이 구성된 의료봉사단을 이끌고 몽골서 의술을 펼친 경험이 있는 부산대 백승환 교수가 주선해 8월초 한국에 와, 부산대 병원에서 1차 재활치료 수술을 받았다.

지금은 창원 한서병원으로 옮겨 재활치료를 계속 진행 중이다. 몸을 가누기도 어려웠던 테무진은 현재 오른손으로 장난감을 잡고, 다리에 힘을 주고 걸을 수 있는 정도로 호전됐다. 창원 한서병원은 테무진의 치료비는 물론 테무진 어머니의 체류 비용 일체를 부담하고 있다. 천미희 기자

종범 큰스님의 육성녹음 설법 테이프!

인생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갈증과 무상한 삶의 가치를 되짚고 싶을 때

불교를 알기 쉽게

테이프 12개 (불교를 알기 쉽게 도서포함) 값 78,000원

한국 불교계의 부루나로 널리 알려진 종범스님의 불교 입문서. 원시불교의 기초교리에서부터 선불교, 대승경전에 이르기까지 불타의 기본교의와 수행은 물론 불교의 개요와 역사, 석가모니의 생애 및 교단의 설립, 보살행, 육법공양, 불교의례, 반야심경을 비롯한 경전, 해설 등을 총망라하여 집대성한 종범스님의 설법집으로 불교의 모든 것을 알기 쉽게 풀어 놓았다.

현대고승법어(現代高僧法語) 총서

* 전국 대형서점 및 불교서점에 있습니다.

1. 경봉(鏡峰) 큰스님 값: 14,000원
문뱃장을 만져 보거라
2. 정산(京山) 큰스님 값: 14,000원
넉넉한 마음으로
3. 청담(靑潭) 큰스님 값: 9,000원
마음에서 마음으로
4. 구산(九山) 큰스님 값: 12,000원
머물며 흘러가며
5. 해암(海庵) 큰스님 값: 12,000원
길을 묻는 그대에게
6. 해안(海眼) 큰스님 값: 12,000원
마음이 곧 부처
7. 청화(靑華) 큰스님 값: 12,000원
순간에서 영원으로
8. 관응(觀應) 큰스님 값: 9,000원
회염의 바다
9. 묵담(默潭) 큰스님 값: 10,000원
모든 것은 흘러간다

11월 10일 출간 예정

www.milalbook.com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168-1 성지빌딩 3층 Tel : (02) 529 0140~5 Fax : (02) 579 2312